

제5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브뤼셀 회의 한국정부 대표에 드리는 시리아 아동 및 월드비전 제안서

시리아 전쟁 발발로부터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분쟁으로 인해 6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이 숫자에는 아동 5만 5,000여명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리아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약 1,300만명의 시리아인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이 중 40%는 아동입니다.

수 많은 시리아 아동들이 극심한 폭력으로 신체 및 정신적 외상을 입고, 학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특히 전쟁 발발 이후 태어난 약 500만명의 시리아 아동들은 전쟁 밖의 삶을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정작 전쟁 발발에 그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은 아동입니다.

이미 취약한 삶을 살아가던 시리아 아동 및 사람들의 삶에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까지 닥쳤고, 이로 인해 이들이 경험하는 빈곤, 폭력, 불평등은 극한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 코로나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지연 또는 제한된다면 우리는 시리아의 한 세대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고, 시리아의 평화와 재건 및 복구는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월드비전은 시리아 내전 발발 10주기를 맞아 시리아 내전 10년이 아동보호에 미친 영향과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Too high a price to pay: the cost of conflict(경제적 손실과 파괴된 아동의 삶)’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1) ‘국제사회를 향한 시리아 아동들의 목소리’와 2) ‘한국정부를 위한 제안사항’을 전달 드리오니, 이를 우리 정부의 시리아 지원 계획 수립 및 국제사회를 향한 입장표명 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국제사회를 향한 시리아 아동들의 목소리

월드비전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아동 379명을 대상으로 시리아를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리아 아동들은 시리아의 평화를 간절히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그들의 삶과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약속을 맺고 이를 실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리아 아동들이 밝힌 3가지 주요 제안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 많은 시리아 아동들이 텐트 정착촌 또는 혼잡하고 불안정한 도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리아 아동들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2. 인터뷰에 응한 아동 중 3분의 1은 그들의 보호자가 정기적인 수입 및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 보호자 및 지역사회를 위해 양질의 생계 지원을 해주세요!
3. 시리아 아동들이 삶을 회복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주세요!

2) 한국 정부를 위한 제안사항

[핵심제안]

1. 시리아 아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에 재정적 기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아동 취약성을 고려하여 대 시리아 인도적 지원을 지속 및 확대해야 합니다.
3.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Grave Violations)로 부터 시리아 아동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4. 시리아 재건 및 복구 준비에 아동 및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지원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에 시리아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1. 시리아 아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에 재정적 기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조 2천억 달러로 환산됩니다. 전쟁이 1년 더 지속 될 때마다 1,200억~2,600억 달러의 추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오늘 당장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도 2035년까지 시리아의 재건 및 복구에 소요되는 추가적 비용은 1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이 경제적 손실 중 단 1.6%를 충족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리아를 위해 2012년부터 총 7,745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견 공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숫자로 확인했듯이 시리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및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에 있어 다년도의 유연한 재정 지원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2020년 제4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브뤼셀 회의에서 약속(Pledge)한 1,345만 불 지원(Disbursement)을 완료해야 합니다.
-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2019.07)의 주요 추진 방안이자, 수혜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아동의 필요를 채우는 부모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가 확인 된 현금 지원 프로그램(Cash and Voucher Programming)에 투자해야 합니다.
- 유엔 시리아 대응 계획(United Nations Syria Arab Republic Humanitarian Response Plan)에 의한 즉각적 아동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지역난민·복원력 계획(Regional Refugees and Resilience Plan(3RP))에 의한 아동관련 인도적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난민아동의 재정착, 본국귀환, 지역 내 재통합, 미래 등 인도지원-개발-평화 넥서스의 장기적 관점에서 영구적 해결(durable solutions)에 기여해야 합니다.
- 요르단 및 레바논 컴팩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난민 노동자들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시리아 난민 및 이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면 시리아 아동의 심각한 권리 침해와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아동 취약성 완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및 확대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분쟁 피해를 입은 시리아 아동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극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요르단 내에서만 아동노동이 6%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폭력의 위험에 처한 아동은 8,500만명, 강제 조혼의 위험에 처한 여아의 수는 400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시리아 북부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는 40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10년간 지속된 분쟁으로 보건 의료 시스템 붕괴, 식량, 깨끗한 식수, 생필품 등 모든 것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 삶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취해진 인도적 지원 제한 조치로 생계의 위기가 더욱 심화 되었고, 마스크, 기초 의료약품, 코로나19 진단키트 확보 등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조혼, 유해한 노동으로 내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 시리아 아동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복합적 영향 속에서도 초등 및 중등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기초적 보건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연장하고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한 통로(터키, 이라크, 요르단 국경지대)를 확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3.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Grave Violations)로 부터 아동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분쟁으로 인해 시리아는 아동으로 살아가기에 최악인 곳이 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시리아 아동 사망이 50%나 증가했으며, 소년병 징집은 3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소 1,435개의 학교와 병원이 전쟁 중 표적이 되어 붕괴되어 아동들이 기초 의료 서비스와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 당했습니다. 여아들은 강간, 조혼 등 성폭력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극심한 폭력 가운데 시리아 아동의 평균 기대수명은 13년이 단축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유엔이 규정한 무력분쟁 중 아동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아동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시리아 아동들은 그 동안 받아온 고통이 극에 달했다며, 제발 전쟁을 멈춰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 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 시리아 아동권리 위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유엔 주도의 메커니즘(United Nations-led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for Syria)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동 메커니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전쟁으로 인한 시리아 아동 사망자, 부상자를 비롯하여 그 밖의 중대한 권리침해의 피해를 입은 아동을 성별, 연령별로 추적 및 모니터링 하는 것을 지지해야 합니다.

4. 시리아 재건 및 복구 준비에 아동 및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지원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에 시리아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시리아 아동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해온 공습, 폭격 그리고 이로 인한 가족 및 친구의 죽음 등

은 시리아 아동들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안겼습니다. 또한 내전 발발 10년이 지난 현재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비율은 21%, 중등교육은 28%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시리아 아동들이 건강한 신체, 정서, 사회적 발달을 이루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장기화된 전쟁 끝 재건 및 복구에 대한 부담은 전쟁 중 아동청소년기를 보냈던 이들이 더욱 무겁게 감당해야 하기에 당장 시리아 아동의 발달과 회복을 지원하지 않으면 시리아의 재건복구 능력 또한 위태로워 집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 시리아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적 지원(MHPS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 아동보호, 보건 등 모든 분야에 포함함으로써 아동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수용국 정부가 시리아 난민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직업훈련, 고등교육, 소득증대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당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 시리아의 평화구축, 인도적 지원, 개발, 인권 보장 등 전 과정에 걸쳐 시리아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가장 취약한 아동들과 가까이 일하며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월드비전은 한국정부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해 분쟁취약국과 아동, 여성,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중점과제로 밝힌 점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 인도적 지원 전략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 경험 상기 월드비전의 제안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제5차 브뤼셀 회의에서 시리아 아동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길 기대합니다.

2021년 3월 25일

한국 월드비전